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전달

우리협회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성금을 모금하였다. 임직원들이 모두 성의껏 낸 성금은 무의탁 노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용산의 “베데레함”에 전달했다.

'96 정보엑스포 사무국 협회내 입주

96년 한해 인터넷상에서 가장 박람회로 열릴 '96 정보엑스포(World Internet Expo '96)의 사무국이 우리협회 사무실에 입주,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지난 95년 12월 4일자로 설치된 사무국은 95년말 창립총회를 가진 사단법인 '96정보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10명선의 인력이 상주한다.

이들 사무국 요원은 우리협회를 비롯한 한국전산원 등 유관기관에서 전담인력이 파견된다. 사단법인 '96 정보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이어 앞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등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이날 자리에서 조직위원장에 이용태 정보산업연합회 회장, 부위원장에 이준 한국통신 사장과 홍두표 KBS 사장 등을 선임했다. 한편 사무국은 사무총장에 이철수 전산원장, 그리고 부사무총장에 신범식 우리협회 상근 부회장이 선임됐다.

LAN 연구조합설립 출범

근거리통신망(LAN)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조합이 설립됐다. 우리협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쌍용정보통신 등 관련업계 대표이사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LAN연구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LAN산업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정보통신부에 제출한바 있는 우리협회는 관련 연구조합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기인 모임을 12월 19일 가진바 있다. 이에 따라서 조직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LAN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협회는 지난번 제출한 “LAN 산업육성 및 활성화방안”에서 ▲ATM LAN ▲스위칭허브 ▲무선 LAN ▲행정업무통합패키지 ▲지역정보서비스 패키지 등의 과제를 선정, 개발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고, 이를 위해 연구조합 설립을 강조했었다. 조합의 구성은 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필요자금은 업계·정부가 공동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조합은 창립총회를 가짐에 따라 96년 들어 본격적인 업무개시를 할수 있게 됐다.

제42차 이사회 협회중장기 발전(안) 검토

협회는 제42차 이사회를 11월 30일 타워호텔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신규회원사 가입승인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 협회중장기 발전(안) 보고 등

이 있었다. 이날 신규회원사로 승인된 업체는 신세기통신, 팬택, 대우증권, 에이스정보통신, 삼우컴앤컴, 새롬기술 등 6개사이다.

기기공급업체 추천업무 활발

우리협회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기기공급업체 추천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협회에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철도청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정보기기 공급업체 추천의뢰서가 도착했다. 협회는 이들 기관에 회원사를 중심으로 추천, 기기도입기관이 추천사들 가운데 공급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철도청의 경우 문서전산화를 위한 계획에 협회가 추천한 10개사 가운데서 한국전자계산을 선정했고, 정보통신부 체신금융국은 체신금융분산시스템 구축에, 노원구청은 LAN 시스템 구축에, 증권감독원은 ARS 기기도입에 각각 우리협회 회원사를 선정했다. 우리협회는 외부기관에서 기기도입과 관련 공급업체를 의뢰할 경우 번거로움을 덜고 업무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도 의뢰기관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협회는 국내 정보기기 공급업체를 회원사로 하고 있어 기기공급업체 추천업무에는 적임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우리협회는 회원사지원을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95 정보통신 해외연수 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서울특별시 교육청 입찰 공고안내” “한국통신 연구개

회원사 기기공급업체 추천 사례

사 업 명	추 천 업 체	추 천 시 기	공 급 업 체
철도청 문서전산화 구축	한국전자계산 등 10개사	'95. 7. 22	한국전자계산
체신금융분산시스템 구축	한국전산 등 13개사	'95. 11. 13	
노원구청 LAN 구축	LG 전선 등 4개사	'95. 11. 25	
증권감독원 ARS 기기도입	범일정보통신 등 5개사	'95. 12. 4	

안내정보제공

제 목	일 자	대 상
'95 정보통신 해외연수 지원사업 시행계획안내	'95. 9. 13	회원사(중소업체)
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내	'95. 9. 22	회원사(부가통신사업자)
서울특별시 교육청 입찰공고 안내	'95. 11. 28	쌍용정보통신외 21개사
한국통신 연구개발원 「연구개발협력업체」 선정계획 및 설명회 개최안내	'95. 12. 5	전회원사

발원의 연구개발 협력업체 선정 계획 및 설명회개최안내” 등을 각종 안내정보제공을 실시했다.

PC통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 제출

우리협회는 PC통신사업 관련 업체와 회의를 갖고 PC통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을 95년 12월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LG전자, 나우콤 등 13개사에서 참가, 논의 끝에 작성된 이 건의문은 1)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을 추진 중인 한국통신에 대한 재고 요청 2) 불량사용자 확산방지를 위한 계몽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협력추진 재고”에 대해서는 국내 제1의 기간통신사업자인 한

국통신이 MSN서비스에 전국망을 제공하는 사업추진은 공정경쟁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환경을 고려해 재고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 “정보통신불량이용자 확산방지를 위한 계몽 실시”에 대해서는 불건전정보 유통과 상습 요금체납이 확산됨에 계몽 등 선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건의서는 회선사용 신청시 신속하게 회선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의 여유시설 확보도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요청했다.

금융·세계개선방안 제4차 회의

우리협회는 “정보통신산업의

금융·세계개선방안” 제4차회의를 95년 12월 7일 가졌다.

국민대 김현수 교수, 우진합동 회계사 오윤석 회계사 등 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연구내용에 대한 각 부분 보완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종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고 96년 1월 중 정부부처에 1차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보통신 담당기자와 간담회 개최

우리협회는 95년 12월 21일 정보통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남궁석회장이 참석, 협회 사업 및 발전방향을 설명했다.



▲ 우리협회는 정보통신산업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정보통신인들의 화합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96 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를 1월 26일 힐튼호텔에서 개최했다.

'96 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 성황

정보통신 관련 인사들의 화합과 통신산업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96 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가 1월 26일 저녁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우리협회를 비롯 8개 정보통신산업 관련단체들이 공동개최한 이 행사에는 정보통신부와 관련

단체 회장 및 회원사임원, 대학과 학회·연구소 등에서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 이계철 정통부차관, 윤동윤 전 체신부장관, 이해욱 신윤식 전 체신부차관, 이준 한국통신 사장, 손익수 데이콤 사장, 서정욱 한국이동통신 사장이 참석했다.

또 남궁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이용태 정보산업연합회장, 김영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이희문 전기통신공사협회장, 박동우 유선방송협회장, 김창주 통신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길 전파진흥협회부회장, 공대근통신산업협회부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남궁석 우리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96년은 21세기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올바르게 정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는가'를 놓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신임 이석채 장관이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을 풀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은 격려사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신세대들이 창업한 유망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계속 확대하고 자율과 경쟁을 제약하는 규제는 가능한한 폐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조업 중시의 정보통신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